

韓-美 ‘빅테크 차별금지’ 합의… 온플법·망 사용료법 제동

독자적 사전규제 강행 불가능해져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동력 잃어

업계, 단기적으로 규제 압박 벗어나 장기적으론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한·미 양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 및 불필요한 장벽 금지’를 명문화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설명서)에 합의하면서 국내 디지털 규제 정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플랫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글로벌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던 ‘망 사용료법’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역차별’과 ‘데이터 주권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와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이 관철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의 ‘규제 운신의 폭’이 대폭 좁아졌다고 분석한다. 이항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해왔다”며 “팩트시트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이를 벗어나기 어려워 우리 측 입지가 좁아졌다”

고 진단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막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미국 측의 반발에 부딪혀 온 상황이었다. 이번 팩트시트 합의로 인해 정부가 독자적인 사전규제 법안을 강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려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동력을 잃을 위기다. 국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글(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망 사용료 요구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어 정부적으로 법제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 해외 빅테크들은 ‘차별 금지’를 방패 삼아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역차별’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위치 정보 및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보장’ 조항도 뇌관이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라는 압박으로 해석

된다.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거부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이번 합의를 두고 ‘단기적 안도’와 ‘장기적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던 규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점은 긍정적이나 데이터 주권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팩트시트가 규제 일변도의 흐름을 끊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미국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을 실익은 제한적인 반면, 구글 등 빅테크가 한국 소비자의 이용 패턴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져간다면 이는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로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엔씨소프트, 메인 스폰서 역할 ‘톡톡’… 정부도 관심 집중

‘지스타2025’ 마무리

올해 개최된 ‘지스타2025’는 규모 면에서 지난해보다 전체 부스 수는 줄었지만, 엔씨소프트의 메인 스폰서 참여와 대형 부스가 화제를 이끌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지스타2025가 부산 벡스코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총 3269개 부스로 지난해 3359개보다 약 90개 줄었고, 참가기업 수도 1273개로 전년 1375개에서 감소했다. 대형 게임사들의 출품 규모가 줄어든 탓에 ‘콘텐츠 밀도가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문객 수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주최 측은 “지난해 21만5000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올해 최대 화제는 단연 엔씨소프트였다. 그간 지스타 행사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엔씨소프트가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으며 중심부 스테이지를 장악했고, 초대형 LED 월과 체험존을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5’.

올해 부스, 참가기업 수 모두 줄어
대형사 출품 감소로 콘텐츠 밀도 ↓
비즈니스·인디게임은 안정적 운영

갖춘 ‘플래그십 부스’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집중시켰다.

주요 대형사가 참여를 축소한 상황에서 엔씨소프트의 선택은 사실상 지스타 2025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직접 현장

을 찾아 주요 작품 시연 공간을 둘러보고 관람객과 인사를 나누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게임은 기술과 상상력이 만나는 산업이다. 이용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산업이 성장한다”고 말하며 “엔씨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현장 관심도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막 첫날 현장을 찾았고, 김민

석 국무총리 역시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 등 주요 부스를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대형사 보폭이 줄어든 와중에도 정부 고위 인사의 연이은 방문은 “정책 지원 의지가 강화됐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BTB관에서는 해외 투자사·퍼블리셔 상담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부문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인디게임 전시 ‘인디 쇼케이스 2.0: 갤러리’에는 400여 팀이 참여해 인디 생태계의 폭은 유지됐다.

다만 관람객 체감도에서는 “대형 신작은 엔씨소프트 중심으로 쏠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올해 지스타는 참가규모 감소·대형사 부재·정부 관심 확대·엔씨소프트 독주라는 상반된 흐름을 드러내며 내년 ‘지스타2026’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업계는 대형 신작 출시가 예정된 내년 일정에 따라 전시 경쟁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지를 관련 포인트로 보고 있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

네이버 ‘클럽’ 창작자 보상 확대

네이버가 숏폼 플랫폼 ‘클럽’에 창작자 보상 모델과 정보 태그 기능을 강화하며 일평균 1000만 이용자 기반의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숏폼 플랫폼 클럽에 창작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추가하고 콘텐츠 소비 변화에 맞춰 새로운 보상 모델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클럽은 아웃도어,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지난 9월부터 일평균 1000만 이용자를 돌파하며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클럽 홈피드, 주제피드, 통합검색, 플레이스 등 다양한 지면에서 콘텐츠 노출을 강화해 창작자의 도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AI 추천 기반 홈피드에서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클럽은 지난 8월 출시한 광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피드형 보상 모델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서비스 내 유료 조회 수를 기준으로 광고 수익을 분배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홈피드에 노출되는 숏폼 영상도 수익 대상에 포함된다. 피드형 보상 모델은 11월 시범 운영 후 내년 중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클럽은 플랫폼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정보 태그 기능을 확대한다. 장소태그는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쇼핑태그는 약 350% 증가하는 등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로 방송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태그가 추가된다. 향후 스포츠, 경제 등으로 카테고리를 넓힐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마크도 새롭게 지원해 콘텐츠 신뢰도를 높인다.

AI가 콘텐츠 속 장소나 이미지를 분석해 적합한 태그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되며, 창작자의 기록 편의성 역시 강화된다.

/최빛나 기자

메타빌드, 차세대 복지행정 AI 플랫폼 구축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2026년까지 총사업비 30억 투자

인공지능(AI)·연계 전문기업 메타빌드가 복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차세대 복지 행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메타빌드는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착수 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방향과 실증 계획을 공유하고 복지 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로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올해에는 AI 복지 행정 데이터 구축, AI 서비스 설계, AI 인프라와 개발 환경 조성에 나섰고, 내년에는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개인별 소득·재산·보장·자격 정보 등 약 120만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을 추진한다.

/김현정 기자 hjk1@

삼성SDS, S-OIL과 3년간 IT 통합운영

데이터센터 포함 IT 인프라·앱 운영

삼성SDS는 지난 14일 서울마포구 공덕동 S-OIL 본사에서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IT 통합 운영(ITO)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SDS는 내년 3월부터 2029년까지 3년간 S-OIL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전반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된다.

삼성SDS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S-OIL의



이준희 삼성SDS 대표(왼쪽)와 류열 S-OIL 사장이 S-OIL IT 통합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SDS

IT 전 영역에 대한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